

민수기(2)

메시지 3

하늘에 속한 만나의 실재이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로 우리의 음식을 바꿈으로 그리스도로 재조성되어 하나님의 거처가 됨

성경: 민 11:4-9, 21:5, 출 16:1-36, 요 6:31-35, 48-51, 57-58, 63

- I.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에 속한 만나의 실재로서, 하나님의 선민의 매일의 생명 공급이 되신다 — 요 6:31-35, 48-51, 57-58, 63.
- A.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 하늘에 속한 떡이시다 — 요 6:31-32, 41-42, 49-50.
 - B.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시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셨으며, 하나님과 함께하셨던 분으로서 하나님의 떡이시다 — 요 6:33.
 - C.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 곧 '조에'를 가진 떡으로서 생명의 떡이시다. 생명의 떡은 떡의 본성을 가리키는데, 이 본성은 바로 생명이다. 생명의 떡은 '먹기 좋은' 생명 공급이기도 한 생명나무와 같다 — 요 6:35, 48, 창 2:9.
 - D. 그리스도는 살아 있는 떡이시다. 이 말은 떡의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 떡의 상태는 살아 있다 — 요 6:51.
 - E. 그리스도는 찰떡이시다. 그분은 찰양식이시고 다른 모든 음식은 찰된 양식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의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 요 6:32.
- II.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 요 6:57, 63.
- A. 먹는다는 것은 음식이 유기적으로 우리 몸 안에 흡수되도록, 그것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거듭난 새사람에 의해 생명의 방식으로 흡수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 B.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에 '의해서(by)'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요소이자 공급의 요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because of)' 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리스도를 산다 — 갈 2:20, 빌 1:19-21상.
 - C. 우리는 영과 생명에 속한 주님의 말씀은 먹음으로써, 곧 온갖 기도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신 주 예수님을 먹고,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신 그분을 받아들인다 — 램 15:16과 영어 회복역 각주 1, 엡 6:17-18.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3 (계속)

1.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생명의 영의 체현이다. 그분은 지금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시며, 이 영은 그분의 말씀 안에 체현되신다.
2.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을 얻는다 — 비교 영한 동변 찬송가 612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451장).

III. 하나님은 우리의 음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을 위해 보내신 참된 만나이신 그리스도라는 음식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그분의 선민이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으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 출 16:1-36.

- A.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분별된 광야로 이끌렸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백성의 음식을 바꾸어 줌으로써 그들의 요소를 바꾸어 그들의 본성을 바꾸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 곧 그들의 조성 자체를 바꾸시어, 그들을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변화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
- B. 하나님은 사십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직 만나만 주어 먹게 하셨다(출 16:35, 민 11:6). 이것은 믿는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들 안으로 일해 넣으시고, 그들이 유일한 음식이시자 하늘에 속한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먹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조성을 바꾸시어,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를 건축할 자격이 있도록 하시려는 것임을 보여 준다. 사실상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로 재조성된 이후에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 비교 고전 3:16-17, 6:19, 고후 6:16, 딤페전 3:15, 히 3:6, 계 21:2-3.
- C.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육체를 처리하시는 방법은 육체를 제쳐 두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음식을 바꾸시고, 그들의 육체가 좋아하지 않는 양식을 그들에게 보내신다. 섞여 사는 무리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늘에 속한 맛을 지닌 만나에 싫증이 났으며, 세상의 맛을 지닌 이집트의 양식에 탐욕을 부렸다 — 민 11:4-9, 21:5.
- D. 이집트 음식은 우리가 만족을 얻기 위해 먹기를 갈망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미국은 이집트 음식, 곧 세상적인 오락에 관한 한 최고의 나라이다. 우리가 갈구하고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존재를 조성한 것과 일치하는 음식이다.
- E. 한 면에서 하늘에 속한 만나를 우리에게 자양분을 주고 우리를 치료하며, 다른 면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한다.

민수기(2)

메시지 3 (계속)

- F.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외의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욕구와 배고픔을 없애 주시기를 바란다!
- G. 만나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만나가 되었다. 우리의 조성은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통해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가 건축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음식을 바꾸시어 우리가 그리스도로 재조성되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시기를 바란다 — 마 16:18.
- H. 음식을 바꾸는 것과 더불어 입맛이 바뀌어야 한다.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십시오.” — 요 6:27.
1. 우리의 만족을 위해 우리가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말하는 양식에 해당한다. 그리스도 자신만이 썩어 없어지지 않는 양식이다. 이 양식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2.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강화하고 부축해 주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의 양식이다. 우리가 부축과 힘과 만족을 얻기 위해 취하는 유일한 양식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한다.
 3. 거듭난 모든 사람은 입맛을 바꾸기 위해 음식을 바꾸어야 한다. 하나님의 의도는 세상적인 음식을 끊어 버리고, 하늘에 속한 양식이신 그리스도라는 음식을 먹도록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4. 우리는 모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은 나를 만족하게 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나에게 어떤 만족도 없습니다. 나는 매일 그리스도에 의해 강화되고 부축받습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의존하는 유일한 양식이십니다.”
- I. 우리가 부축과 힘과 만족을 얻기 위해 취하는 유일한 양식은 반드시 그리스도여야 하며, 신약의 유일한 한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유일한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전달해 준다 — 민 11:5-6, 비교 행 1:17, 25, 고후 4:1, 딤후 1:12, 고후 3:6.

IV. 우리는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기 위해 우리의 유일한 양식, 곧 우리의 매일의 만나이신 그리스도의 특징들을 알고 체험해야 한다.

A. 만나는 비밀이다 — 출 16:15, 골 2:2, 사 9:6, 엡 3:4, 요 3:8.

1. ‘만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표현 ‘만 후’에서 유래한 것인데, ‘만 후’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다 — 출 16:15.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3 (계속)

2. 우리가 만나를 분석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분석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참된 만나, 참된 “이것이 무엇이냐?”이시다.
- B. 만나는 장기간의 기적이다. 만나는 매일 아침 내렸으며 매일 아침 거두어야 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급을 저장해 둘 수 없으며, 날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다함이 없으실 것이다 — 출 16:4, 21, 비교 마 6:34.
- C.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한 면에서 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는 떡’이시며, 또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떡’, 곧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의 양식이 되신 분이시다 — 출 16:4, 요 6:32-33, 51.
- D. 만나는 이슬과 함께 내렸는데, 이슬은 주님의 신선한 공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를 신선하게 하며 적시는 주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은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신선하게 하시고 적시시는 하나님이다 — 출 16:13-14, 민 11:9, 시 133:3, 애 3:22-23, 히 4:16, 시 110:3.
- E. 만나는 아침에 내렸는데, 이것은 만나가 우리가 주님과 살아 있는 접촉을 갖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가리킨다 — 출 16:21, 비교 아 1:6하, 7:12, 요 5:39-40, 롬 6:4, 7:6.
- F. 만나는 작다. 그리스도는 구유에서 나셨고, 작고 멸시받는 마을의 목수의 집안에서 자라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눈에 작게 보이기를 더 좋아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 출 16:14하, 눅 2:12, 요 6:35, 비교 사 9:9, 11, 13, 마 13:31-32.
- G. 만나가 작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르시고 균형 잡히셨으며 우리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 출 16:14, 요 6:12.
- H. 만나가 등글다는 것은 우리의 음식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고 온전하시며 충만하시고 부족이나 결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가리킨다 — 출 16:14, 요 8:58.
- I. 만나가 희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시고 섞인 것이 없이 순수하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출 16:31, 시 12:6, 119:140, 고후 11:3하.
- J. 만나가 서리와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고 신선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죽이신다는 것을 상징한다 — 출 16:14, 잠 17:27.
- K. 만나가 고수씨와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며 번성하는 생명으로 충만하시다는 것을 가리킨다 — 민 11:7, 눅 8:11.

민수기(2)

메시지 3 (계속)

- L. ('백성이 그것을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쪼은 후 솔에 찌서'(민 11:8)라는 말이 함축 하듯이) 만나가 단단하다는 것은 우리가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거두어들인 후에 반드시 우리의 일상생활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그분을 '갈고, 쪼고, 찌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 비교 고후 1:4, 엡 6:18.
 - M. 만나의 모양이 베델리엄과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밝고 투명하시다는 것을 가리킨다 — 민 11:7, 계 4:6, 8, 겔 1:18.
 - N. 만나의 맛이 기름에 구운 과자와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맛볼 때 그 안에 성령의 향기가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 민 11:8, 시 92:10.
 - O. 만나의 맛이 꿀로 만든 과자 맛과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달콤한 맛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것을 상징한다 — 출 16:31, 시 119:103.
 - P. 만나가 과자를 만들기에 좋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양분이 풍부한 부드러운 과자와 같으시다는 것을 가리킨다 — 민 11:8, 뎀전 4:6.
- V. 공개된 만남은 우리가 먹지 않았던 만나인 반면에, 감추어진 만남은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고 동화시킨 만나를 가리킨다 — 계 2:17.
- A. “여러분은 이기는 이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은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이기는 이가 될 수 있다. 공개된 만남을 먹으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감추어진 만나가 되실 것이다. 이 감추어진 만나가 여러분을 이기는 이로 조성할 것이다.” —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39장, 490쪽.
 - B.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동화시킨 그리스도는 전부 영원한 기념이 되실 것이다. 우리가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에 관해 회상할 것에는 두 방향이 있을 것인데, 하나는 우리를 재조성하는 요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의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이 우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로 만드는 공급이신 그리스도의 방향이다 — 출 16:16, 32.
 - C. 금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가 하나님의 거처의 초점이었듯이, 우리가 먹은 만나이신 그리스도는 오늘날 하나님의 건축물의 초점이다 — 히 9:3-4, 엡 4:16, 골 2:19.